

인권으로 보는 판이한 두 현실

참된 삶의 보금자리

오늘날 지구상 도처에서는 생존의 권리를 위한 각종 인권단체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있고 재난으로 사랑하는 혈육들을 잃은 통곡소리가 그칠새없다.

하나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꿈과 이상이 하나들 현실로 펼쳐지고 행복의 웃음, 노래소리가 끊없이 울리고있다.

지난 4월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력구와 송화거리의 새집들이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남조선과 해외의 인터넷에는 《모든 살림집들이 현대적이고 호화스럽다》, 《마치 부유한 〈호화촌〉과 같은 느낌을 준다. 북이 이런 집을 평범한 근로자들, 로컬혁신자, 풍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준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글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공화국에서 새집들이는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성정으로 훌륭히 일떠선 새 거리와 새 마을, 새 집들의 눈부신 자태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울리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볼수록, 들을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맞은 첫해에 창건거리가 일떠서울 때 적대세력들은 선전용이라느니, 《특권층》을 위한것이라느니 하고 떠벌이였다.

하지만 거기에 입사한 사람들은 평범한 인민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서 몸소 찾으시어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신 김정수평양방직 공장 방직공의 가정, 본인은 물론이고 안해와 딸 모두가 교육자인 가정, 남편도 안해도 로동자인 가정... 이들이 바로 창건거리의 주인들이었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일떠세운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력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력구 등도 모두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졌다.

당과 국가가 마련해준 호화주택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방건설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 삼지연시가지 머지않아 불라보게 변모될 시, 군들의 미래상으로 되고있으며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술마구락부, 양덕은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선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

기회들도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중요거점으로 되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어머니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속에 복된 삶을 누려가는 장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 제일 불행했을 부모없는 아이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누려가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조진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라고 격정적 경유 노래하며 공화국인민들은 내사 내 나라 세상에서 제일 이라고 격정적 경유 노래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더욱더 휘황한 패일을 마중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되었다.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늘도 감복하는 숭고한 사랑이 있어 전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시기에 도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사랑의 젓제품을 받아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으니 이런 행복의 요람이 또 어디에 있는가.

진정 공화국의 사회주의야말로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에 안아 보살피주며 행복과 기쁨만을 안겨주는 참다운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내사 내 나라 세상에서 제일 이라고 격정적 경유 노래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더욱더 휘황한 패일을 마중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인간생지옥, 자살왕국

《우리 아이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너무도 빨리 배운다. 도대체 무엇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로 만드는것인가. 사회의 중심이 될 아이들의 마음이 어둡고 침침하니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것인가.》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언론에 실렸던 글이다.

이를 통해서도 남조선이야말로 어린이들이 행복보다 불행할 먼저 알게 되는 지옥같은 세상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것은 법적, 도덕적의무이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세워주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미래와 인권보장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다.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은 보호가 아니라 학대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특대형참사의 피해자도, 학대의 피해자도 다름아닌 어린이들이었다.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의 행

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들중 최하위라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남조선의 어린이학대피해사례는 3만 905건으로서 2016년(1만 8 700건)에 비해 월등하게 늘어났으며 2021년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는 43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지옥같은 사회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마음의 약성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망울도 터쳐보지 못한 어린이들이 사회약속에 시들어가고있는 남조선에 과연 미래가 있을수 있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차별시되고 생존의 권리를 빼앗기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남조선에서 일반남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에 비해 보통 30%정도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들가운데 맨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여기에 여성전염병사태이후 전체 여성의 20%가 퇴직하였거나 실직당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차별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종성폭행에서는 여성들의 일상생활이 혐오로 얼룩지고있다. 여성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항상 두려움을 안고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수 있도록 정책이 뒤받침되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첫순가락에 꼽히는 자살지옥이다.

얼마전 열살짜리 아이가 부모와 함께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집 우편함엔 빗속죽장이 수북이 쌓여있었고 아이의 부모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뒤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극단적선택을

강요당해야만 했던것이다.

생활고에 비판한 가족의 동반자살은 한두건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이런 참혹한 비극은 계속 일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남조선의 10만명당 자살률은 24.5명으로서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총 자살자수 1만 3 000여명중 10대와 20대, 30대의 자살률은 각각 6.5명, 21.7명, 27.1명으로서 2019년(각각 9.4%, 12.8%, 0.7%)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다.

자살한 동기들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자수가 4 900여명(38.4%)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생활문제(25.4%), 육체적 질병문제(17%), 가정문제(7%)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자살은 그야말로 하나의 사회적병으로 되고있다.

정치인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로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직위와 나이, 남녀에 구별없이 자살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행병처럼 퍼져가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에서는 《이 땅은 시체의 집합소로 변해가고있다.》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인권의 불모지라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이다.

하지만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린 약품과 물자들을 받아안으며 해주지 주민들이 격정에 겨워 터진 심중의 고백이 있다.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식솔임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사회주의대가정!

가정이란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사회의 세포이며 기층생활단위이다. 허나 가정이라는 부름이 한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를 통칭하는 비상한 의미로 사람들의 심금을 무한히 격동시킨적이 그 어디에 있었는가.

사회주의대가정. 이 부름은 오직 조선에만 있다.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정과 사랑의 바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다.

이 땅에 흘러간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청년들,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 혈육의 정을 강그리 바치고있는 고마운 사람들, 불치의 병으로 하여 걷지 못하는 아이를 수년동안이나 업

고다니며 치료를 해주어 끝내 이 땅을 밟을수 있도록 해준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미더움이 국풍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외국 한 번은 이렇게 토로하

치게 하고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 인민의 락민,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자는것이 당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구절구절을.

부모없는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육아원, 애육원건설에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짜 꽃피나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그렇다.

사회주의대가정, 비록 일곱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신념과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공화국인민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실려 있다.

하기에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의 현명한 령도따라 삶의 보금자리인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더욱더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

《조선식사회주의에서 기본은 사랑과 믿음의 관제, 사회성원들사이의 동지적단결과 호상협력의 관계이다. 이 관계로 하여 조선은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누구나 바랐지만 누구도 이루지 못한 참다운 인간관계, 그것은 김정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좋은 말이다.

무성한 거목에는 깊은 뿌리가 있기마련이다.

세월과 더불어 이 땅에 차민치는 덕과 정,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늘의 엄혹한 국난을 뚫고나가는 격동의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안아온 경이적인 화폭이다.

인민들 누구나 가슴후덥게 새겨안지 않았던가.

온 사회에 덕과정이 차민

《조진식사회주의에서 기본은 사랑과 믿음의 관제, 사회성원들사이의 동지적단결과 호상협력의 관계이다. 이 관계로 하여 조선은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누구나 바랐지만 누구도 이루지 못한 참다운 인간관계, 그것은 김정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좋은 말이다.

무성한 거목에는 깊은 뿌리가 있기마련이다.

세월과 더불어 이 땅에 차민치는 덕과 정,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늘의 엄혹한 국난을 뚫고나가는 격동의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안아온 경이적인 화폭이다.

인민들 누구나 가슴후덥게 새겨안지 않았던가.

온 사회에 덕과정이 차민

그 얼마였고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피해로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잠 못이루시며 그이께서 해제가신 위민현신의 장정은 그 열마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의 거창한 설계도도 펼쳐주시었다.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존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숭고한 리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사랑의 불사약을 전염병을 앓고있는 대상대들에게 안겨주시는 뜨거운 은정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 현신의 세계는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미덕과 미풍이 활

짝 꽃피나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그렇다.

사회주의대가정, 비록 일곱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신념과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공화국인민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실려 있다.

하기에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의 현명한 령도따라 삶의 보금자리인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더욱더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범

독재문화 재중동료 리영철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의 교육제도를 왜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제도라고 하는가

참다운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을 전제로 하며 무료교육은 의무교육의 성과적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한다. 비록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교육의 대상에게 과중한 학비를 부담시킨다면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의무교육이 아니며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담보도 없는 형식에 불과한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자라고있으며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종 학교와 대학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료란 말조차 모르고 마음

껏 배우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교육비를 나라에서 부담하고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실험실습,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이를 위해 공화국에서는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있으며 그것을 해마다 계통적으로 늘리고있다.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돌리지는 무료교육의 혜택은 결국 교육에 돌리지는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사회제도의 성격과 경제

도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화국에서 실시하는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은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도 모두 국가부담에 의해 실시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학생들의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해결해주고있다. 사실 국가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보살해주는 옷값만 하여도 참으로

막대하다.

이렇듯 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으면서 그에 토대하여 교육강국, 인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힘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고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후대사랑의 응결체 - 《꽃망울》제품

공화국의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꽃망울》에기껏가루에 대한 호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꽃망울》에기껏가루를 비롯하여 어린이영양제품들을 먹어서 그런지 아이의 영양상태가 좋고 잘 자고있는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체질과 생리적특성에 따르는 여러가지 젓가루제품들이 있어 정말 좋습니다. 어린 딸이가 일곱달쯤했는데 에기껏가루(아장아장)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는 종업원들모두가 후대사랑을 꽃피워가는 남다른 긍지, 자기 자신들에게 먹일 젓가루제품을 생산하는 심정을 자아내어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에기껏가루제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면서도 제품의 영양성분포함량을 높이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다 바쳐가는 기술자, 종업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미려한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꽃망울》제품들에 어린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자욱 자욱이 어려웠다.

돌발적인 엄중한 방역위기가 조성되었던 지난 5월 너도 갑자기 들이닥친 상심박의 어려운 시기여서 안라까와하면서 누구나 선뜻 바라지 못했던 에기껏

가루, 암가루제품까지 관심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에기껏가루와 암가루를 공급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던 잊을수 없는 날들이 떠올러오는 격정속에 떠올랐다.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 줄기차게, 더 뜨겁게 호르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제 품마대에 정성들여 담아가는 이곳 기술자,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에기껏가루제품들이 인기를 끌고있는 비결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꽃망울》제품들, 진정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단순한 식료품이 아니라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자애로운 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피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첫물이었다. 그 사랑이 있어 어떤 광풍속에서도 구김없이 더 활짝 꽃피어 이 땅의 꽃망울들의 창창한 앞날을 가슴부듯이 그려보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진혁

